

“숨통 트여요” 고유가 지원금 받은 시민들 ‘함박웃음’

취약계층 내달 8일까지 우선 수령
기초수급 60만원·차상위 등 50만원
동복지센터 대기줄...비대상 헛걸음도
“지금 시기 달리 한 것은 낙인” 뒷말

“차에 기름도 넣고 반찬도 사려고요. 소비쿠폰도 큰 보탬이 됐는데, 이번 고유가 지원금 역시 숨통을 트이게 하네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첫날인 27일 광주 지역 동행정복지센터 곳곳에는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등을 수령하기 위한 발걸음이 잇따랐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된다.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신청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45만원인데, 광주는 비수도권에 해당돼 1인당 5만원씩이 추가된다. 이번 주는 노동절(5월1일)을 제외하고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5·0) 등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대상자가 다르다.

신청 분산을 위한 이 같은 조치 덕에 이날 대기행렬은 오래 가지 않았다.

오전 8시50분께 봉선1동행정복지센터에는 20여명의 주민들이 신청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급 시작 약 30분 만에 모두 마무리 됐다. 다만, 일부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 대상자가 아님에도 찾아오는 헛걸음 사례가 있어 입구에서부

터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후 오전 9시께부터 시작된 신청은 주민등록증 확인 후 지급 금액을 안내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이어 일정 금액이 충전된 선불카드나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광주상생카드 중 하나로 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

선불카드는 10만원권과 50만원권으로 나눠 있는데,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달리 색깔은 같은 짙은 남색으로 동일했다.

북구 용봉동행정복지센터는 오지급 등 혼선 방지 차원에서 10만원권에 포스트잇처럼 쉽게 떼 수 있는 스티커를 붙여 나눠주기도 했다.

지원금을 수령한 시민들은 너도나도 웃는 얼굴로 들뜬 마음을 표했다.

용봉동 주민 조영섭(76)씨는 “요즘 기름값이 부담돼 차를 몰고 다니기도 쉽지 않았다”며 “지

원금으로 기름도 넣고 생활비에 보탬 생각”이라고 말했다.

봉선동 주민 박모(61)씨는 “지난번 소비쿠폰도 유용하게 썼는데, 이번에도 기름 값이나 가족 외식처럼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3일까지다.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도 이 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2차 기간의 주요 신청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기준은 다음 달 초에 확정될 계획이며 지원 금액은 10만원이다. 단, 광주 시민의 경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에 해당돼 5만원씩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시기와 무관하게 지원금은 오는 8월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이며, 신용·체크·선불카드는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이자.

이와 관련, 일각에선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70%의 지급 시기를 구분한 것이 지난해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을 달리하며 생활 수준을 드러나게 한 것처럼 수령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낙인을 찍는 행정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익명의 한 광주 시민은 “지급 시기를 달리하며 먼저 2차 수령 기간 전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라는 건데 누가 마음 편히 쓸 수 있겠냐”며 “어려운 이들에게 먼저 지급한다는 취지는 좋다지만, 이게 최선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끝을 흐렸다. /서형우·윤찬용 기자



“마음도 있고! 맛도 있고!” 돌봄 아동을 위한 밑반찬 지원사업이 27일 오전 광주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열려 북구주부봉사단과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돌봄 아동에게 전달할 반찬들을 담고 있다. /조영권 기자

日강제동원 피해자 목소리 시민단체 품으로

아카마스조선소 故 황광릉씨 손녀
육성 녹음 테이프 등 자료 4점 기증
시민모임 “자료 수집...교육 등 활용”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육성 녹음 등 자료 4점이 시민단체에 기증됐다.

27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황광릉씨의 손녀 황소미씨가 할아버지의 일제 강제동원 증언 육

성이 담긴 녹음 테이프 등 자료 4점을 최근 기증했다.

기증된 물품은 황씨가 1996년 녹음한 50분가량의 테이프, 음성 파일이 저장된 USB, 국가기록원에서 발급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신고 조사 기록, 위로금 지급 신청 심사기록 등이다.

해당 녹음 테이프 등에는 황씨가 강제동원된 후 탈출한 일이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920년 장성에서 태어난 황씨는 1942년 11월 후쿠오카현 아카마스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고역을 치렀다. 그러다 1944년 4월 함께 간 고향 친구와 탈

출을 모의, 밀선을 구해 대마도·완도를 거쳐 구사 일행으로 목포에 도착했으며 일본에서 출발한 지 20여일 만에 고향 장성 땅을 밟았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빛바랜 사진 한 점, 낡고 먼지 앉은 문서 한 장, 그날의 흙어진 기억 한 조각은 역사의 진실을 소리 없이 말해주는 소중한 자료”라며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기 쉽지만, 흙어진 자료가 모아지면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귀중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일제 침략 실상을 보여주는 기록물 ▲사연이 담긴 사진, 우편물, 일기, 신문자료, 각종 피해 신고 서류, 영상물 ▲당시 기념물 등 강제동원 아픔이 담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서형우 기자

고용부,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공개

187명...광주 24명·전남 18명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비롯한 28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광주 24명, 전남 18명 등 총 42명의 사업주가 포함됐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체불액이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명단 공개 없이 신용제재만 적용된다.

광주 지역 공개 대상 사업주는 건설업이 다수였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업종이 다양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오는 2029년 4월까지 3년간 성명과 나이, 상호, 주소, 체불액 등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또 정부 지원금 제한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상 구인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이번 명단 공개 대상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금금지 조치도 적용된다.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윤찬용 기자

미등록 유아교육시설 운영 40대 검찰행

미등록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미등록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한 혐의(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로 기관 대표 A(4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교육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22-2025년 광주 동구 소재 교육기관을 무단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안교육기관’ 명목으로 학생 1명당 매월 50만원 상당 교육비를 받았으며, 별도 강사를 뒤 종교·수학·영어 과목의 교육을 하기도 했다.

A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영 기자

광주 피부과서 40대女 심정지...경찰 수사

광주 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으려던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북구 운암동 한 피부과에서 A(40대·여)씨가 심정지 증상을 보여 지역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까지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했고, 당시 시술을 위해 수면마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에 사안을 인지한 경찰은 피부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안재영 기자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

한 번에, 한 눈에, 한 손에!
1천만 고객이 선택한 NH국민은행!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확인하세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스마트한 카드!
올바른 NEW HAVE 카드

- 기본예금과 이자 0% 3개월 0% 6개월 0% 9개월 0%
- 신용 한도 2% / 저리 1%
- 국민은행 24시간 24시간 서비스 센터
- 농협 24시간 24시간 서비스 센터

농협 24시간 24시간 서비스 센터

농협 24시간 24시간 서비스 센터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기아지동지점 062)385-4977~8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비 들 지 점 062)381-1971~2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동림아니로지점 062)531-774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동 운 지 점 062)528-2640~2	용 신 지 점 062)526-022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아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영동센터지점 062)361-4472~4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와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지역 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